

7천 한성인들의 목소리, '한성제' 개최

22일 전체학생총회, 23일 현무제 진행

'한성제'가 내달 22-23일로 정해졌다. 한성제는 전체학생총회와 현무제를 양일간 놓고 진행되는 행사로 학생회측은 이 행사를 2학기 최대의 화두로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22일 열리는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오후 4시에 운동장에서 카운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총회는 학생회 총칙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교생의 10분의 1이 참여해야 학생총회가 성사된다. 우리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7천여명이다.

학생총회의 중요한 화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인원구성 및 민주화 ▲등심위 공개토론회 ▲적립금 사용처 및 장부공개 요구이다. 현재 등심위의 인원구성은 최소 7명 이상의 교직원과 학생,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연초 우리학교 등심위 회의장에는 교직원 4명, 외부 관련 인사 1명, 학생대표 2명이라는 구성원으로 4:1:2로 심의가 진행됐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현재 등심위 구성비율이 학생대표에게 매



▲지난 18일 확대간부수련회에서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총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 또한 등록금 심의과정을 일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이번 학생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옥형빈(의예 4)예술대학 학생회장은 "한 학기가 지났지만 등록금 인상 이유 중 지켜진 게 하나도 없다. 인상된 등록금을 다시 돌려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학생회측은 전체학생총회와 2학기 가을축제인 현무제를 양일로 묶어 '한성제'라 이름짓고 축제와 더불어 우리학교 등록금 문제도 공론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김태성 총학생회장과 강병석

(경제 3)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여 한성제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한성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참여로 학생회측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회의 중에 있다.

현재 홍보방법으로 티셔츠 홍보, 플래쉬몹(flash mob)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활발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 포스터, 현수막, 리플렛, 강선, 문선공연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이 정해진 요일에 학생총회에 관한 메시지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홍보하는 방법과 플래쉬몹이 특히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이 총학생회측에 문의하면 홍보 티셔츠를 배부받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현무제와 연계된 합인쿠폰이나 배지들도 제안됐다.

전체학생총회와 현무제를 하나의 행사처럼 묶어 진행하기로 결정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는 데 따른 충돌이 그 이유였다. 현무제 추진위원회 측은 "학생총회에 현무제가 물릴까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학생총회를 준비하는 임원측은 "학생총회에 재미적인 요소가 결합되면 진지함이 덜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학생회 임원들은 18-19일 확대간부수련회 등 수차례 회의의 통해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해 상반기에 경희대, 서강대 등 다수 대학이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켰으나 학생총회 자체가 성사되긴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는 선거가 늦어져 학생총회가 늦게 꾸러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학생총회가 불을 이룬 상황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옥형빈 예술대학 학생회장은 "대학생 연대 분위기에 우리 학교의 목소리도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에 오래 다녀야 할 1학년 학생들이 특히 학생총회의 취지에 공감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삼 학 승

학생회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학생회 회의 테이블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적극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학생회는 학생들과 떨어져 있었다. 갑수록 그 간극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슈다. '그들만의 학생회'는 10년 전에도 다했던 문제이다. 학생들은 학생회에 무관심하다. 심지어 '총학생회가 뭐가요'라고 묻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그런데 요즘 '그들만의 학생회'인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무관심이 느껴지는 건 왜 일까.

회의 테이블 저쪽에선 심각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선 꾸벅꾸벅 졸며 떨어지는 얼굴, 자연스럽게 '카톡'을 보내는 손가락이 보인다. 모두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기 전에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임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 억지로 끌어내어 듣는 대답이 이어지는 토론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참석율이 낮은 회의 테이블, 언제나 한명쯤은 존재하는 누군가의 대리인, 그리고 웃지 못할 '전화연결'까지. 이게 바로 지금의 학생회가 그들의 주체인 학생들로부터 매력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

자기 알기힘에 급급해 학교 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학생들이 많은 것은 지금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제 목소리를 내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회는 결국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란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학생회란 이름이 진정 빛나기 위해서 학생회 자체가 잘 정립된 매력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우리의 대표로서 학생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회의 안전에 별 관심이 없고 어떠한 의견도 없으며, 마치 수업시간처럼 회의를 견디는 대표에게 신뢰를 가진 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학생총회는 마침 좋은 기회다. 학생들이 학생회의 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이 기회를 살린다면, 학생과 학생회 간의 오랜 간극이 좁혀질지 모를 일이다.

이성이 편집국장

2학기 학생회비 예산회의 방중 진행

9월 학생총회 고려한 예산 분배해

2학기 학생회비 예산회의가 지난 26일 총학생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예산회의는 학생총회 진행과 관련돼 기존보다 앞당겨 진행되었다. 하반기 예산은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에 비중있게 책정되었다.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는 각각 학생총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예산을 기획했고 사회과학대는 강연회를 계획 중이다.

이날 예산회의에서는 각 단위가 9월 진행될 '한성제' (위에 있는 기사 참조)를 치르기 위해 협조하는 분위기가 었다. 명사 초청 강연회의 경우 야간 총학생회(이하 야총)와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 사회과학대 세 단에서 모두 2학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예산회의 결과 졸준위는 당



▲지난 26일 총학생회실에서 열린 하반기 예산회의의 모습이다.

초 계획보다 초청 명사의 수를 줄였고, 야총은 사과대 강연회에 힘을 싣기로 했다. 졸준위의 취업박람회 계획된 금액은 1백2만 원이며 사과대에

책정된 금액은 4백26만 원이다.

이번 학기에는 시험기간의 야식사업을 학생총회 간식비로 돌리기로 했다. 한영준(의예 4)총대의장은 "야식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일차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은 "매번 해 온 야식사업이지만 등록금 문제로 한번 쉬어가면 학교 일에 무관심했던 학생들을 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기원(멀티 4)학부위원장장은 "학생들이 야식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회비 총 예산은 6천 6백만원이며 각 단위의 예산 총액은 5천 7백 70만 6450원이다. 차액은 8백 29만 3550원으로 이는 학생총회 비용으로 책정됐다. 예산회의 결과는 다음달 진행될 상임위원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인준된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신임 프레젠테이션 이재문 교수 임명



이재문(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는 지난 7월 1일자로 한성프레젠테이션으로 임명되었다. 한성프레젠테이션은 교내 신문사, 영자 신문사, 방송국의 운영 책임자로 이들 매체의 제작을 총괄한다. 보직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다.

임종석(멀티미디어공학과)교수는 지난 6월 30일자로 한성프레젠테이션 센터장의 임기를 마쳤다.

취재부

2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 진행
무용학과 학생회실 옮겨도 효율성 없어

4 시금 3천888원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

7 대학오페라 페스티벌 추계예술대 '사랑의 묘약'

지면안내 <http://twitter.com/hansungnews>

학생회소식

- 사회과학대 : 중고소득 커넥터 사업(학기 중 계속)
- 학생복지위원회 : 8월 30일부터 위원회실 정상 운영
- 졸업준비위원회 : 8월 31일부터 위원회실 정상 운영
- 총대의원회 : 8월 29일부터 9월 2일 감사 및 대의원 등록

제451호 6면 동아화스토리 이경윤 '월하탄금도' 편에 김홍도 '무동' 도판이 잘못 실렸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2학기 신임임용교원 안내



이재석

■ 역사문화학부
- 조교수
- 고려대
- (일)교토대



전주상

■ 행정학과
- 부교수
- 서울대



김남용

■ 무용학과
- 전임강사
- 한성대



나도성

■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 조교수
- 서울대
- 조선대



잉바(Ingvar Lofstedt)

■ 영어영문학부
- 전임강사
- UCLA
- MIT
- UCLA

총학생회 1학기 사업보고 진행

초반부엔 다소 시행착오 겪어, 후반기엔 학생총회 주력할 것

지난 8월 18~19일 양일간 진행된 확대간부수련회에서 드림하이 총학생회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상반기 활동으로 보고된 사업은 ▲예비군 훈련지원 ▲총회 현수막 및 기획 ▲대동제 ▲우촌관 외관 기획 ▲농촌연대활동 ▲잔디밭 리모델링 기획 ▲반값등록금 실현기획이다.

처음 진행한 몇몇 사업에는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정통 4)총학생회장은 "예비군 훈련 지원은 음료수 배분량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총회 현수막 및 기획에선 페인트로 칠한 현수막이 비로 인해 운장까지 날아가 분실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며 2학기 총회 현수막은 업체에 주문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어 "농촌연대활동은 당초 90명을 예상했으나 사과대의 인원이 1백명이 넘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촌관과 잔디밭 리모델링 등의 사업기획에 대해서는 "특히 잔디밭의 경우 바닥 때문에 학생들의 불편함이 크다. 학교측에 기획서를 제출했고 반응이 괜찮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논의중"이라 말했다.

하반기 예상 사업은 ▲학생총회 ▲취업박람회 ▲커뮤니티 홈페이지 활성화 ▲한성 TED ▲데일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 ▲소셜 커머스 활성화 ▲UCC 한국을 알라라(가제) ▲낙산체전이다. 2학기엔 특히 학생총회와 관련된 부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드림하이 총학생회 공약 사항				
교육	공약	1학기	2학기	
	강의평가 모니터링 요원	X		
	취업 박람회	행사없음	0	
	취업관련정보와 공모전 정보 공유·배포	X		
	취업 커뮤니티 장려금	X		
복지	공약	1학기	2학기	
	학기초과자 등록금 개선	X		
	분할납부자 선정방식 개선	X		
	교육 훈련 지원금 평생활용	X		
	스마트 학생증	X		
	와이파이 장소 늘리기	X		
	단체교류 강화	X		
	기숙사 확충	0		
	우촌관 외벽, 잔디밭, 낙산 활용한 캠퍼스 조성	?		
문화	공약	1학기	2학기	
	데일 카네기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	X		
	한성 소셜 커머스	0		
	의견 수렴 앱 개발	?		
	한성대 영상제	0		
	글로벌 리운지 파티	0		
	강연 콘텐츠	X		

O: 진행함 X: 진행하지 않음 ? : 시행준비중, 2학기 진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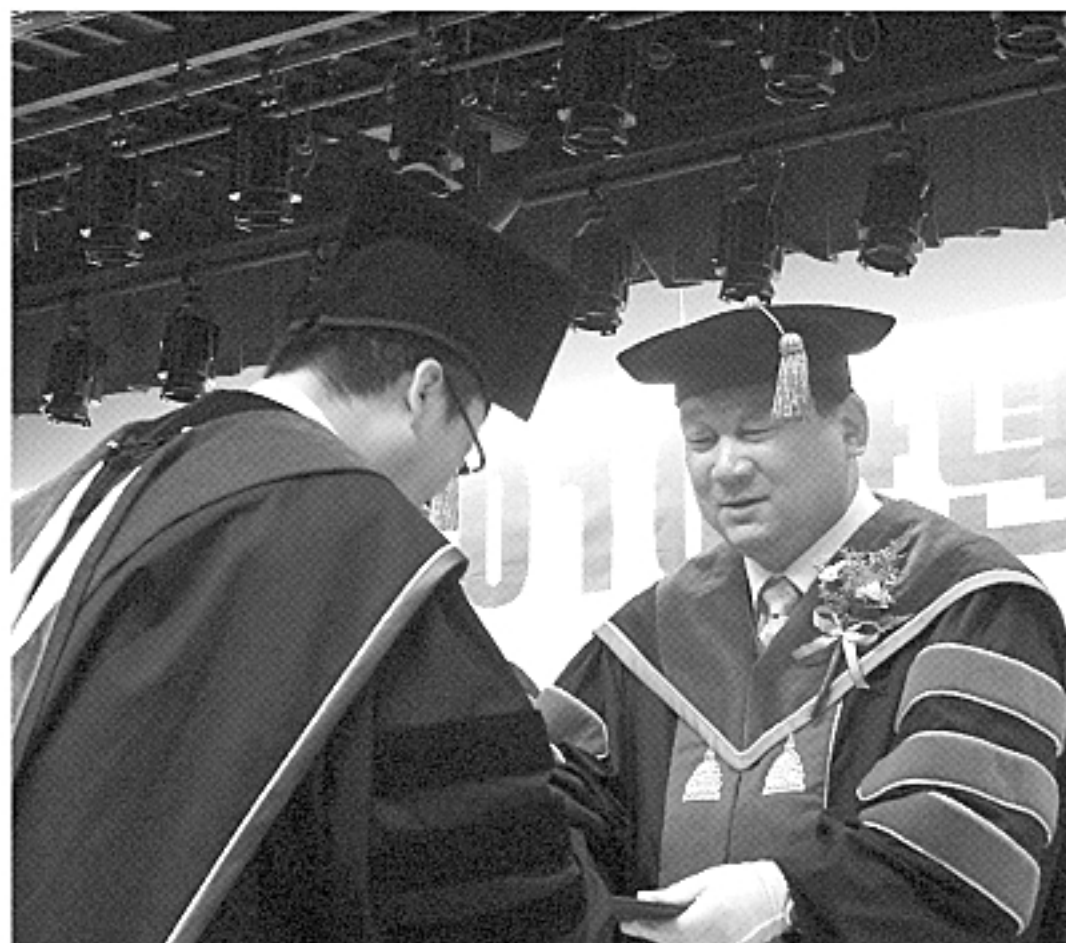
선거당시 내건 공약들 중 ▲취업관련정보와 공모전 정보 공유·배포 ▲강연 콘텐츠 ▲학기초과자 등록금개선 ▲분할납부자 선정방식개선 ▲교육훈련지원금 평생활용 ▲스마트 학생증 등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다. 김미정(한국어문 4)부총학생회장은 "취업관련정보 공유 부분은 취업지원팀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며,

연사초청 부분은 학교측에서 교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지원금은 예술대의 재료비 지원등을 포함하면 기준이 모호해서 문제가 있다. 스마트 학생증의 경우 특히 리더기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은행측에서 망설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201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열려

학사 330명, 일반대학원 석사 18명, 특수대학원 석사 100명, 박사 6명 졸업



2010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지난 19일에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330명, 일반대학원 석사 18명, 특수대학원 석사 100명, 박사 6명과 총장, 동창회장 및 보직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및 상장 수여, 총장 격려사, 대학원 총동문회장 축사, 교가제창, 폐식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주택 총장은 "이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 또한 오늘의 결과가 있기 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들의 노력을 항상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한성대는 재학생들을 잘 기르고 졸업생들에게 명문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졸업생들도 한성대의 이름을 빛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박성학 대학원 총동문회장은 "하루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본인이 한성대의 일원이라는 것과 모교에 대한 사랑, 목표에 대한 정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백종민 기자 jongmini@hansung.ac.kr

간추린소식

'우촌학사' 신축 공사 완료

학생 기숙사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다. 새 기숙사는 '우촌학사'로 삼선동 3가 27-10번지로 본교회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1천308.7㎡규모로 들어선 우촌학사는 27개 실로 1개 실당 4인이 이용하게 된다.

수용가능인원은 98명으로 일반인 학생 96명, 장애인 학생 2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여학생만 입사가 가능하다. 기숙사에는 공동세탁실과 공동샤워실, AV실, 기타 휴게공간을 갖추어져 있다.

클래식기타의 선율을 느껴보세요

클래식기타 동아리 한음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9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창의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17회째를 맞은 이 연주회는 동아리 신입회원이 처음으로 대외에 연주할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아영(경영 2)학생은 "이번 연주회는 방학동안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준비한 동아리 최대의 행사이다. 회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학우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연을 관람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동아리 회원 하지원(의생명 1)학생은 "연주회 준비가 힘들었지만 방학동안 기타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번 연주회로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올 추석은 학복위 귀향버스와 함께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서 한가위 귀향버스 사업을 실시한다.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을 위해 시중보다 35% 저렴한 가격으로 고속버스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복위와 함께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경부선, 영동선, 호남선을 경유하는 다양한 노선이 마련돼 있으며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학복위실(창의관 208호)을 직접 방문하거나 클럽(club.cs.world.com/28thwmlfruckwml)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복위실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기원(멀티 4)학생복지위원장은 "귀향버스 사업을 통해 학생 복지는 물론, 서울에 흩어져있는 동향 사람들의 만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월 15~16일 취업창업 페스티벌

2011 한성 취업창업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진행된다. 메인 장소는 스타디움라운지이며 미래관 DLC와 미래관 회의실, ELC강의실, 소강당 등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존과 같이 기업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식 대신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 우수식(취업창업지원팀)팀은 "채용설명회에 참여할 업체를 대기업 중심으로 전공을 고려해 섭외 중이다"고 전했다.

그 밖에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인사담당자의 실전모의면접 등의 취업 컨설팅과 관련 특강, 이미지메이킹, 지원서작성법, 사진촬영 등의 취업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비한 졸업예정자가 우선 대상이며,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막식은 15일 미래관 로비에서 열리며 페스티벌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등정란

이중수(행정학과)교수
이 교수의 저서 『새 미래의 행정』(대영문화사/2010년 4월 출판)이 2011년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전완식(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교수
전 교수는 9월부터 프라임 문화재단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누구의 사물함일까요?

개강 일주일 전, 창의관 사물함에 지난학기 사용하고 방학 내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쌓여 있다. 얼핏 보기에도 사물함 문 상태가 좋지 않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무용학과 학생회실, 옮겨져도 효율성 없어

올해 6월, 우촌관 1층에 위치했던 무용학과 학생회실이 낙산관1층으로 옮겨졌다. 지난 4월 12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학생회 구안 내용 중 학생회실 마련이 예술대안건 중 하나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김지현(무용 4)학생회장은 "학생회실이 생기면 당시는 우촌관에 무용실이 위치해 있었다. 무용실이 낙산관으로 옮겨진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학생회실은 우촌관에 있어 거리상 이용하기도 불편해 그동안 의상이나 소품실로 방치되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요구안이 수용된 후에도 학생회실 사용에는 그리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민(무용 4)학생은 "학교에서 내 준 학생회실이지만 공간이 좁아 의상과 소품들도 가득차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창고의 개념이 된



것 같다. 타 학과처럼 학생회실에서 조금이나마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현 학생회장은 "우촌관의 학생회실은 넓어서 소품 및 물품을 보관하기 편했지만 낙산관의 공간은 좁아서 소품들 만으로도 가득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학교에서 내 준 공간이 원래는

낙산관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잠깐 쉬는 공간이었다"며 "실 공간을 잃어버린 아주머니들은 현재 낙산관에 있는 샤워실에 옷자리를 깔고 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앞으로 학생회실 리모델링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한성 권장도서 66선』 기념 제1회 독서경진대회

한성학원 설립 66주년을 맞이하여 한성인의 독서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성 권장도서 66선』을 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제1회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책 읽는 즐거움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울 기회가 될 독서경진대회에 관심있는 한성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독서경진대회 일정
 - 응시 자격 : 한성대 재학생
 - 접수 기간 : 2011년 9월 14일(수) ~ 30일(금)(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접수)
 - 대회 개최 일시 : 2011년 11월 2일(수) 오후 4시
 - 대회 개최 장소 : 학술정보관 일반열람실 5층(제3열람실)
 - 수상자 발표 : 2011년 11월 7일(월)
- 독서경진대회 내용
 - 출제 범위 : 한성 권장도서 66선 중 「지정도서 10선」에서 출제
 - 시험 유형 : 주관식 단답형
 - 「지정도서 10선」 및 「시험유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월초에 공고

- 상장 및 상품
 - 대상 1명 : 상장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
 - 최우수상 2명 : 상장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우수상 3명 : 상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7명 : 상장 및 10만원 상당의 상품
 -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증정

■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첨언 참조)

* 위 일정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혼자라도 괜찮아, 혼자가 익숙한 대학생들

나홀로족, 친구들 신경쓰지 않고 움직일 수 있기에 편하다

‘햇살도 알아요/형상 돌이던 우리를/사람도 하늘도 알죠 친구해 준대요/오늘 티켓은 두 장 사세요/옆자린 왠지 비우고 싶어/코미디는 언제나/혼자도 볼 만하네요’ 가수 헤이의 ‘혼자놀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혼자놀이’에 도전 중이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혼자놀이 어디까지 해 봤니?’라는 포스트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는 “사회의 개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카페나 식당에서 혼자 커피를 즐기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에 따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1인 문화가 즐기는 ‘나홀로족(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기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일반 전국에서는 대학생 2천51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학 친구 친밀도’ 설문문을 실시한 결과 현 대학생들은 나홀로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족에 대한 인식으로는 어느 정도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67.9%),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다(23.9%)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 부끄럽다(12%), 알파 같이 보여서 싫다(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근래에 알고 지내는 친구는 몇 명이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20명

이상이라는 의견이 39%로 1위를 차지했고 5~10명(23%), 10~15명(16%), 1~5명(14%), 15~20명(9%) 순으로 다소 많은 친구들을 알고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절친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지만 나머지 응답에는 3명 20.7%, 2명 20.6%, 4명 12%, 1명 11%, 없음 11% 순으로 나타나 알고 지내는 친구에 비해 절친한 친구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친구는 깊이 친해질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학점, 취업에 의한 경쟁 관계이므로(45%),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라서(34%), 같이 수업만 듣는 사이므로(28%), 각각 다른 지방에서 모였기 때문에(17%), 학부제기 때문에(10%)라고 응답해 친해질 수 없는 조건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박일남(제품디자인졸업생)은 “가끔 생각할 것이 있거나 뭔가를 정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혼자서 추구한다”며 “1, 2학년 때는 많은 학생수에 비해 모임 기회가 없다보니 알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4학년이 되면서 학과 사람들과 더욱 더 친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현(경영 4학년)은 “공부할 때는 혼자가 편하다. 친구에게 휘둘리는 것을 싫어해서 혼자 움직이는 편이다”며 “방해받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그

는 또 “사람들 하기 나름이지만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도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게 되는 것 같다. 학과에는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도 그 이유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친구들과 학과는 같지만 진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만나서 어울릴 때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나만의 자기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친구들과 있으면 휘둘리게 되어 계획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데 비록 혼자가 되면 자유롭게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편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그는 “학과 내에서 친구인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있어 깊이 친해질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지희(역사문화 2학년)는 “학과 친구들과 친하지만 학기 시간표를 짤 때 각각 듣고 싶은 수업으로 구성한다. 그러다 교차하는 과목이 있으면 같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양수업이나 학과수업에서 타과 사람들과 교류할 때 면과 과제가 끝나면 서로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많아 일회적인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미(학생생활상담소) 상담사는 “예전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했던 이유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디지털 기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검색만 하면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대학교라는 집단 특성상 이익을 얻기 위해 오는 집단으로 이익과 연결되는 경우에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난으로 인한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그 시간을 할애하고 빼앗기기 싫은 심리가 작용해 사람과 함께 만나고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같은 길을 가게되는 사람과는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해 누군가가 우위에 올라가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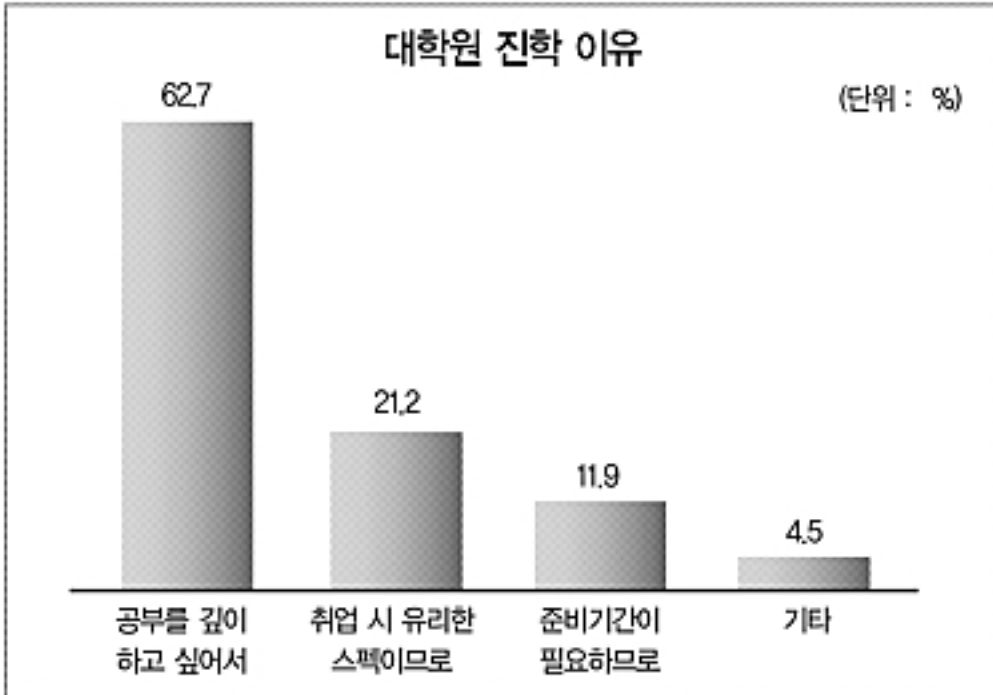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나홀로족에 대해 “홀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와 만나고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 경쟁관계가 아닌 진정한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소중한 것”이라며 “비교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돌려 자아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대학생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 생활, 단체 모임, ‘뭉쳐야 산다’는 말은 옛날 얘기가 되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개인주의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학에서 낭만과 추억이 자리할 곳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통계로 본 대학사회

대학 4학년생, 3명 중 1명은 대학원 진학 고려해



한국사회는 끊임없는 입학과 졸업을 요구하는 나라다. 사람들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들을 다른 눈치로 바라본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사모를 쓰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한번 더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도 많고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선배들이 많고 나도 그럴 예정”이라고 채재진(대학생, 23)씨는 졸업 후 선택할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부 4학년이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졸업 후 진로를 궁금해 하는 질문들이 쏟아진다. 취업(혹은 창업)이나 대학원이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대학원 진학에 이제는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이지서베이와 공동

으로 대학교 4학년생 357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질문에 33.1%(118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 졸업반 3명 중 1명이 취업 대신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채 씨는 “지방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자신의 내াম밸류를 높이기 위해 서울이나 외국대학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석사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평균 학력이 높아져 그들과 경쟁하려면 대학원진학은 필수가 된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 대학원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유로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62.7%)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이 학문탐구 본연의 목적보다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우선 ‘대학원 진학이 취업 시 유리한 스펙으로 작용하므로’(21.2%)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자들이 있었다.

또한 ‘당장 취업하기가 어려워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11.9%)란 이유도 적지 않았다. 즉,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별다른 이유 없이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지혜(25, 한양대 겸, 교육대학원 재학 중)씨는 “교육대학원은 원하는 직업을 위해 교육과정도 필요해서 진학하게 되었다”며 “예술계는 일자리의 취업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는 백수이기를 가지기 싫어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80%를 넘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사모를 벗은 후에도 또 다른 학력이 높아져 그들과 경쟁하려면 대학원진학은 필수가 된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 대학원 진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이유로는 ‘하고 싶은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어서’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한성 권장도서 66선 목록

★ 한국문학			
NO.	서명	저자	
1	연암선문선	박지원	
2	토지	박경리	
3	광장	최인훈	
4	얼마를 부탁해	신경숙	
5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6	시 읽는 기쁨1-3	정호규	
7	열하행진	김덕환	

★ 외국문학			
NO.	서명	저자	
1	고도를 기다리며	사뮈엘 베케트	
2	카리야조프 가의 형제들	도스토예프스키	
3	피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4	그리스로마신화	이윤기	
5	세익스피어4대비극	세익스피어	
6	이Q정전	루쉰	
7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8	노인과 바다	에른스트 헤밍웨이	
9	부활	톨스토이	
10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11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12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로	
13	보버리 부인	퀴스티브 플르베르	
14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스 셀링저	
15	백년의 고독1-2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 철학 / 사상			
NO.	서명	저자	
1	목민심서	정약용	
2	백범일지	김구	
3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4	국부론	애덤 스미스	
5	칸다자서신	칸다	
6	논어	공자	
7	삼국유사	알연	
8	국가	플라톤	
9	페라투스라는 이름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10	정치의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11	슬픈영웅	클로드 레비 스트로즈	
12	방황의 기록	데카르트	
13	고민하는 힘	강상중	
14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박석우	

★ 역사			
NO.	서명	저자	
1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6	유홍준	
2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H. 카	
3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4	모던 타임스 1-2	폴 존슨	
5	문명과 바다	주경철	
6	책만 보는 비보	안소영	
7	역사의 공간	이진경	

★ 과학			
NO.	서명	저자	
1	과학혁명의 구조	토머스 S. 쿤	
2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3	중의기원	찰스다윈	
4	코스모스	제임스 글리크	
5	통섭	에드워드 월슨	
6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7	코스모스	칼 세이건	
8	충교식	제레드 다이아몬드	
9	거의 모든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10	이중나선	제임스 왓슨	
11	자연과학의 세계 1-2	김희준	

★ 정치 / 경제 / 사회 / 예술			
NO.	서명	저자	
1	서양미술사	에. H.贡브리지	
2	니른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3	괴짜경제학	스티븐 레빗	
4	독서력	사토 다카시	
5	행복의 지도	에릭 와이너	
6	강의	신영복	
7	끝나지 않은 추락	조지프 E. 스티글리츠	
8	불황의 경제학	폴 크루그먼	
9	희망의 법칙	제임스 데이비드	
1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저클러	
11	사고 정리학	도어마 시게히코	
12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시급 3천888원을 합법으로 만드는 방법

아르바이트생도 인턴근무... 최저임금에도 10% 감액 예외 없어

대학생 권유리(가명)는 지난 한 달간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떠올리면 아직도 이틀 간다. 권양은 방학을 맞아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는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권양은 "시급협 의라고 광고를 낸 것은 거의 대부분 최저임 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면 접 당시 점장은 "처음 세 달은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시급을 4천원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시급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권양은 어쩔 수 없이 점 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권양이 카 운터 업무를 완전히 익히는데 걸린 시간은 실상 2~3일에 지나지 않았다. 권양은 "출 청 소를 혼자 도맡아하는 등 정직원보다 업무의 강도가 훨씬 심한데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것

이 억울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루 10시 간씩 일한 것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었다. 권양은 결국 몸살이 났고 병가를 내기위해 점장에게 전화를 건 그 자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권양은 "일하는 기계가 고장 나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시는 아 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다"며 불쾌함을 털 어냈다. 수습근로는 본래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가 업무를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 인성이 어 떤지,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 피해를 주지 는 않는지 등의 확인을 통해 업무 적성 여부 를 판단하지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습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해고

예고 등의 일부 규정은 예외이며 최저임금의 90%까지 정식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 할 수 있다"며 "다만 수습근로가 법률상 의 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최저영(영어영문 1)학생은 "행집에서 아르 바이트를 했었다. 제품명과 가격을 일일이 다 외워야 카운터를 볼 수 있는 업무여서 처 음 한 달간의 수습근로가 나중에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턴제는 근로자는 경험을 쌓고 회 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별할 수 있어 서로 가 윈-윈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지만 문제는 인턴제를 악용하는 악덕업주들에게 있다. 비교적 임무가 단순로운 편의점, 패스 트푸드점, PC방,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처 음 1~3개월을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으로 정 해놓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합법적 으로' 지불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한 수습근 로기간이 끝나자마자 고용주는 그동안 수고 해준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적은 임 금으로 일 해줄 또 다른 '희생양'을 그 자리 에 대체할 수도 있다. 주로 청소년·대학생 들이 이 학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 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태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패밀리레스토랑의 관계자 는 "학생들은 일을 시작하지 2~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일을 가르치는데 걸 리는 시간만큼 임주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수습근로를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는 "본사에서 1년마다 지점을 상대로 최저임 금제를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규제를 하 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며 "가맹점은 본사의 시스템만 사용할 뿐, 본사와는 다른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습근로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점주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직 영점은 인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

었다. 예전에 비해 등록금, 생활비를 버는 등 경 제적인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크게 늘었다. 때문에 학생들은 부당 한 대우를 견디면서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인식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근로자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할 땀 은 파트너로 대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빚어지 는 대부분의 마찰은 사라질 것이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과 달리, 인턴의 이름을 빌려 값싸게 노동자를 부리는 편법행위는 시정을 바라기가 어렵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세 번째, 근로자 스스로가 권리를 쟁취하 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 고 온 좋게 맘씨 좋은 사장님 만나기를 바라 는 '랜덤게임'에만 기대다면 절대적 약자로 서의 미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5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가 해준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적은 임 금으로 일 해줄 또 다른 '희생양'을 그 자리 에 대체할 수도 있다. 주로 청소년·대학생 들이 이 학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생각해보 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태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패밀리레스토랑의 관계자 는 "학생들은 일을 시작하지 2~3개월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일을 가르치는데 걸 리는 시간만큼 임주는 손해를 입기 때문에 수습근로를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는 "본사에서 1년마다 지점을 상대로 최저임 금제를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규제를 하 는 것이 현실상 어렵다"며 "가맹점은 본사의 시스템만 사용할 뿐, 본사와는 다른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습근로 여부를 판단하 는 것은 점주의 판단에 달려있다. 하지만 직 영점은 인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

또, 응답자의 51%는 현금 정산 과정에서 손해배이 발생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자비로 차액을 충당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주당 15 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7.9%에 지 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31.6%는 '주휴수당 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1%는 현금 정산 과정에서 손해배이 발생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자비로 차액을 충당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주당 15 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7.9%에 지 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31.6%는 '주휴수당 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그린 액티브

당신은 '개념 있는' 여행자인가?

'나의 행동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번 코너를 기획하 게 된 출발점이다. 환경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보고, 환경을 살릴 수 있 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지구사용설명서'와 '환경아 놀자'의 저자인 정미정 환경교육센터 연구실 장의 글을 통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자.

'대쿠이 밤(체코), 탁(덴마크), 키토스(핀란 드), 베르세(프랑스), 그라제(이탈리아), 캅자 이(아르헨티나), 당케(독일), 아리가토(일본), 씨에 씨에(중국), 탕큐(미국), 감사합니다(한국)...' 국제화 시대, 우리는 점점 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알아간다. 때로는 일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러, 때로는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 는 국경을 넘는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생각해볼 문 제가 있다. 여행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환 경피해도 적고 자연자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 라든 투자할 만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행기는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룡'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1,600km를 여행할 때, 승객 1인당 이산 화탄소 배출량은 대중교통의 경우 118kg, 기 차의 경우 204kg, 소형차 268kg인데 비해 비행기는 440kg나 된다. 이처럼 이동하면서 배 출되는 이산화탄소도 문제지만, 여행객들이 늘면서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여행지에서 사 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도 문제다. 게다가 여행지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한편에선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다. 호 텔, 여행사, 휴양클럽, 관광회사, 식당 체인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 개발 도상국일수록 더 그렇다. 영국의 여행NGO 인 '투어리즘 컨선'에 따르면,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20% 정도이고 나머지 80% 는 선진국의 큰 손들이 가져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행을 포기할 것인가? 여행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살아있 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다. 최근 에는 여행을 포기할 수 없지만 환경을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을 중시

으로 일명 '생태관광, 에코투어, 환경여행, 공경여행, 책임여행, 착한여행, 대안여행, 지속가능한 여행'과 같은 대안적인 여행문화 가 확산되고 있다. 여행객이 지나간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환경을 생각하 는, 즉 여행의 목적뿐 아니라 여행이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는 일명 '개념 있는' 여행문화 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 여행자의 환경? 문화적 인식, 지역사회 공동체의 경제적 이 익과 문화적 인식을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떠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떠나느냐이다. 여행은 단순한 재미 나 놀이가 아니다. 낯선 문화와 사람들과 환 경과의 관계맺음이다. 바람직한 여행의 모습 은 나와 환경 혹은 지구가 함께 생각하고, 나 와 타문화 속의 그들을 함께 생각하는 일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 념 있는' 여행자가 된다면, 여행이 주는 즐거 움도 커질 것이다. 당신은 어떤 여행자인가? '개념 있는' 여행자가 되려면, 다음의 10가 지 원칙+을 기억하자!

- * 공경여행 캠페인 참조
www.cafenaver.com/fairtravel
 - 1. 지구를 돌보는 여행
 -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여행
 - 3.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여행: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행
 - 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여행
 - 5.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여행
 - 6. 친구가 되는 여행
 - 7.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
 - 8.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키는 여행
 - 9. 기부하는 여행
 - 10. 행동하는 여행: 경계를 넘는 만남
- 글 · 정미정 (사)환경교육센터 연구실장



낙산만평 이다영(의생학 1)

어이쿠 명목이 켜네...

떨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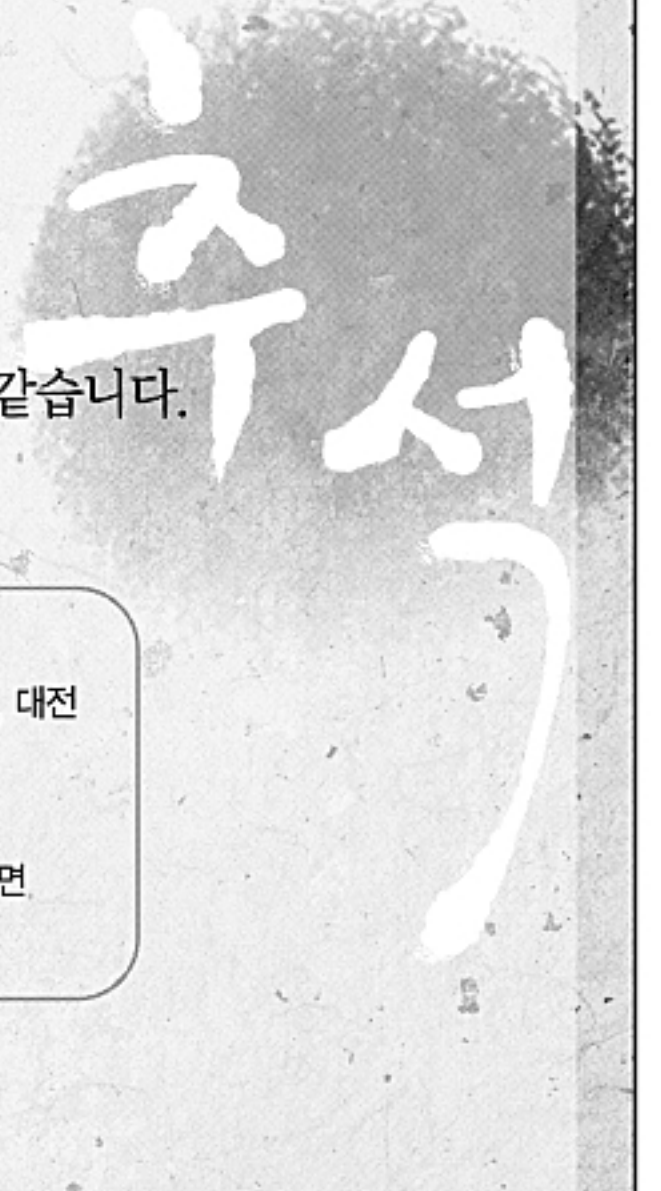
학생복지위원회 한가위 귀향버스 안내

안녕하세요^^ 28대 즐겨찾기 학생복지위원회입니다. 무더운 여름,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 즐겨찾기에서 '한가위 귀향버스'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사업내용: 시중 고속버스가격의 65%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한가위 귀향버스 사업추진
- 신청기간: 8월 29일~9월 6일(추가접수: 9월 7일~9월 9일)
- 혹여나 환불을 원하시더라도 추가접수기간을 제외한 9월 6일까지는 환불이 가능
- 신청방법: 학생복지위원회실 직접 방문 혹은 학생복지위원회 클럽을 방문하여 신청
- 클럽주소: club.cyworld.com/28thwmfruckwrl
- 출발시간: 2011년 09월 10일 10시
- 출발장소: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 노선안내: 경부선(부산, 울산, 마산/창원, 진주/통영, 포항, 경주, 대구, 구미, 영주/안동, 대전, 영동선(강릉/동해/삼척)
- 호남선(광주, 목포/여수, 전주/정읍, 군산/익산, 순천/광양)
- 이하 기타사항은 창의관 2층 208호로 방문해주시거나 010-4056-1263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우님들 마음속의 즐겨찾기
28대 학생복지위원회



의화정



권요 교수 (무역학과)

미래는 스스로 창출하는 것

대학 5학년생, 대학 6학년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청년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졸업을 미루고 휴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이다. 대학에 입학해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년 8개월이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취업이 어렵다는 통계로도 등장하고 있다.

인문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활 중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너무 늦게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다. 너무 늦게 깨닫고, 너무 늦게 시작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생 중에 너무 늦게 깨닫고, 깨닫고도 시작하지 못하여 기회를 놓친 일이 어디 한 두 가지도 넘겠지만 말이다. 아마도 취업의 중요성을 늦게 깨달았으며, 취업을 위하여 준비를 한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한성대생들에게 대학생활과 취업을 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강의 중에는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예를 들어 전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지면상 간단하게 이야기 하려고 한다.

대학생활에서 목적과 목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정립하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공부할 할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으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목표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설정해야 한다. 목적은 쉽게 변경할 수가 없지만 목표는 수정이 가능한 것이다. 즉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 대학에 입학하면 그 목표는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의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취업이 된 그 다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목표의 달성 후를 대비하는 자세가 정립되면 그가 원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쉽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방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방향도 막연하게 설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1차는 어느 직업, 2차는 어느 직업, 3차는 어느 직업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1차가 안되면 2차, 그리고 2차가 안되면 3차 등과 같은 식으로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목적은 원대한 미래의 꿈이라면 목표는 목적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수립인 것이다.

직장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후회가 없고 재미가 있으면 좋은 직장이다. 자신이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보수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입사원 중 6개월 이내에 약 30%가 이직을 하는 이유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

을 볼 때,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수강하는 과목 중에 그 과목을 들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 지도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다면 그 분야에 본인의 적성이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강과목을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목적에 맞고 자기가 세운 1년간의 목표에 적합한 과목을 수강과목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

간혹 친구와 같은 시간에 수강한다는 목표를 세워 맹목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그 과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결과를 놓고 자신을 자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친구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자신의 목표에 맞는 수강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사람

하늘을 가르는 불사조, 죽지 않아!

행·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피닉스



어쩌면 인류는 태초부터 하늘을 나는 꿈을 꿨는지도 모른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어느 토요일 아침, 이카루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주한 행·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피닉스를 만났다.

사람들은 종종 '하늘이 손에 닿을 듯'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구름을 만져본 사람이 있거나 할까? 행글라이더를 타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행글라이더는 날씨에 아주 민감한 종목이에요. 날씨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최대 10배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씨가 좋으면 구름 바로 아래에서 비행할 수도 있죠. 국내에서는 최고 3천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 행글라이딩 동아리에 가입한 사실을 알렸을 때 당연히 가족들은 위협하다며 만류했다. 자칫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부상은 물론, 값비싼 기체까지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행 중에는 반드시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만 한다. "하늘을 나는 기본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긴장과 짜릿함의 연속이죠. 이제 그만두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인성관 동아리 세미나실에는 피닉스 소유의 패러글라이더 수십 개가 보관돼있다. 어

린이가 키만한 크기의 가방을 때보니 20kg은 족히 나갈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 장비비 차고 3~4시간씩 비행을 하려면 먼저 상당한 체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 "담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큰 가방을 메고 지나가면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땀함도 생겼고요. 패러글라이딩 강습 클럽에서 배우는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회비로 일어난 게 아주 많아요."

피닉스는 방학은 물론이고 학기 중의 주말에도 틀이 나는 대로 비행을 나간다. 회원이라면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선배의 지도 아래 마음껏 비행을 할 수 있다. "피닉스는 국내 최초의 대학생 행글라이딩 동아리예요. 재작년에는 전국 대학생 패러글라이딩 대회에서 정밀착륙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올해도 출전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국내 행글라이딩 1위가 우리 동아리 출신 선배님이에요." 피닉스의 신입회원들은 얼마 뒤 첫 비행날 날갈 일정에 벌써부터 마음이 잔뜩 부풀어있다. 그 자리에는 역시 10기수도 넘게 차이나는 선배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토록 끈끈한 유대가 믿기지 않는다면 인성관 308호의 문을 직접 두드려봐도 좋겠다.

오지영 기자 gulyomee@hansung.ac.kr

|사설| 기억의 유형

기억력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억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아직 없다. 그런 방법을 찾기 보다는 기억에 대해 지금껏 밝혀진 것들을 찬찬히 살펴 자신의 기억적성을 파악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기억력에는 더 좋다.

기억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예컨대 브래들리라는 미국의 인지심리학자는 기억을 시각기억, 청각기억, 어의기억, 감성기억, 일화기억, 절차기억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기억력이 좋거나 나쁘다고 하여 다른 유형의 기억도 그렇다는 법은 없다.

시각기억은 눈으로 본 것에 대한 기억을 말한다. 필자는 시각기억이 뛰어나다고 자부한다. 한번 본 얼굴은 거의 잊지 않는다. 그러나 청각기억은 나쁜 편이다. 음악을 한 두 번만 듣고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각기억이 좋은 사람인데 필자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애를 먹고 어학공부를 해도 발전 속도가 더디다.

어의기억은 단어의 의미나 이미지를 기억하는 능력이다. 대학시절 필자는 친구와 '곰' 다방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일에는 신촌 로터리에서 '돼지' 다방을 찾고 있었는데 곰을 동글동글하고 복스러운 귀퉁이를 닮은 이미지로 기억에 저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속 당일에는 비슷한 이미지의 돼지로 인출했던 것이다.

절차 기억은 경험한 사상(事象)의 순서를 기억하는 능력이다. 대개 운동과 관련이 깊다. 예컨대 자전거를 배우는 것은 일련의 동작 절차를 익히는 것과 동일하다. 이 절차

기억은 매우 독특해서 한번 기억되면 시간이 지나도 거의 망실이 없다. 그래서 한번 배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긴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일화기억은 에피소드를 기억해내는 능력이다. 지나간 일들을 시시콜콜 기억해 내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본다. 일화기억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감성기억이 있다. 감성은 말 그대로 특정한 느낌이나 정서를 말하는데 보통 특정 사상의 경험과 연합되어 기억된다. 기억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그나마 기억해내는 것들은 공포, 슬픔, 기쁨과 같은 강한 감성과 연합된 것들이다. 예컨대 대학입시에 합격했을 때의 장면과 같은 것들이다. 주목할 점은 감성에는 각성수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각성 수준은 깨어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각성수준이 낮으면 멍하고 몽롱한 상태이며 높다는 것은 놀라거나 무서워 극도로 주변상황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상태다. 각성수준이 높으면 기억력은 매우 좋아지지만 주의의 범위가 매우 좁아져 학습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균보다 약간 높은 각성수준이 학습에는 가장 좋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흥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회면을 걸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써먹는 상황을 상상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각성수준을 적당히 높이는 것이 좋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기억 유형에 강한가? 분명 그런 기억 유형이 한, 두 개 있을 것이다. 당신은 결코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못 찾았거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기자수첩

대기업의 검은 탐욕



내년도 최저임금이 2600원 오른 4천 5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4시간을 일할 경우 103만 5천 80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다. 기자가 한 주 동안 듣는 수업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동안 일을 해도 주거비, 통신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제하면 남는 돈은 1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친구들과 외출이라도 나가는 날에는 적자를 보기 십상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조리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1천 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인에게도 민감한 문제이다.

임금의 인상은 곧 이윤의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이 1천 원 인상된 5천410원이 된다면 고용주는 곧장 '다이어트'에 돌입할 것이다. 이는 즉 근로자의 실직을 의미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망에 속한 편의점의 이익 분배 구조는 64 정도 된다고 한다. 편의점은 시급을 짜게 주기로 '약명 높은' 일자리 중 하나이지만, 실상 지점장이 가져가는 수익에서 임금을 비롯해 이것저것을 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고용주들이 꼭 악덕업주인 것은 아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직원들의 월급은 꼭 챙겨주려 하는 사장도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고한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동시에 쥐어짜게 될 수도 있다. 우선 개선이 시급한 것은 하청 단가를 후려치고 동네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려 하는 대기업의 유통구조가 아닐까?

한편 연합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요 그룹들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국내 주력업종과 무관한 분야에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지영 기자 jongmin@hansung.ac.kr

가로세로

①					②		⑦
			③				
③			④	⑤			
		⑥					
⑤				⑥			⑧
⑦	④		⑤			⑧⑨	

정답지 발표
김군태 (부동산 1) 010-XXXX-6893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가로 세로

- ① 일본의 보수 정당으로 올해 8월,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 의원들이 이 정당에 속해있다.
- ② 유력민, 유망자를 뜻하는 말로 '호모○○○'라는 인문학적 접근이 최근 유행했다.
- ③ 판소리 12마당 중 하나. 관우와 조조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다.
- ④ 어떤 사태나 사건이 발전, 변화하는 단계
- ⑤ 도시나 산업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일
- ⑥ 인문학의 시화, ○○에 대해 밝혔다.
- ⑦ 신숙된 우리학교 기숙사의 이름
- ⑧ 꽃이진 얼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
- ① 학습면 서명 코너에 실린 책 서명. 자신을 좀 더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의견이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 ③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파헤친 문학
- ④ 토막극, 아주 짧은 연극
- ⑤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등
- ⑥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세상에 떠도는 소문 등을 파헤치는 일
- ⑦ 서로의 머리리카락이나 머리를 잡고 싸우는 일
- ⑧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일
- ⑨ 널리 알려져 광고하는 일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한줄덧글

Q. 수강신청 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가요?

- 야간 시간표 짜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 5시간 배정은 잔인합니다! 또,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혜정(지정 3)
- 01초 만에 마감된 스키 교양 강좌, 강령들이 인사면접 수준입니다. 신민철(행정 4)
- 북수전공 신청할 때 전공 기초 지정과목도 아니고 전공선택 과목도 타과 학생은 정정기간 되어서 혹은 학과사무실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거 너무 힘드네요! 윤승혁(영역영문 2)
- 다른 학교처럼 미리 수강신청 할 것을 담아서 확인하고 시간표에서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용환(기계 2)
- 타대학의 강의 '장바구니' 기능이 부러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후배님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석(기계 2)
- 1학년은 전공이 지정이다 보니 편한 점도 있지만, 듣고 싶은 학교들이 죄다 전공시간에 먹혀서 겨우 다른 수업으로 끼워 넣었더니 시간표가 뒤죽박죽이네요. 공강이란 없는 건가요. 김다혜(사각영상 1)
- 야간 예대 핵사는 왜 죄다 수요일에 몰려있는 건가요? 핵교 요일을 분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최승희(의생활 1)
- 핵심교양AB는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자리가 남지 않아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남는 자리가 무엇인지 보고 그 과목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조혜연(의생활 1)
- 듣고 싶은 것 못 듣고 그나마 남은 전공마저 못들을 때 추가 학기를 다닐까봐 인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숙(경영 4)

이번 호 당첨자는 소혜정(지정 3), 김용환(기계 2), 조혜연(의생활 1) 학생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문화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모든 한성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는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면에 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내용이든 신문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문사로 보내주세요.

- 소개 예시
-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
- ○○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우리 동아리를 자랑합니다!'
- '나는 고발한다, ○○○을...'
- 한성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영화, 여행지 등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4~5매(A4의 절반 정도)
보내주실 곳: press@hansung.ac.kr
기타 문의: 760-4186, 010-4534-8682

보내주신 글이 채택돼 지면에 실리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시가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한다”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자크 아탈리는 2006년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에서 인류가 끊임없이 이동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유목은 인류의 속성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이를 유목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노마드'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그는 책에서 유목민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를 조망했는데 이후, '노마드'라는 용어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진행됐다. 또 '노마드'의 의미가 공간적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한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창조적인 행위로 넓혀지면서 '잡노마드' 등과 같이 현대사회의 각종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이렇듯 몇 년간 인류의 유목성이 조명되는 시도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인류의 정착성과 그들이 건설한 도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목과 정착 모두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어떤 모습일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도시의 승리'는 도시가 인간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어떤 모습의 도시가 성공한 도시인지에 대해 다른 책이다. 단, 저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설 사업보다 도시의 재생을 위해 건물이나 사람에 투자해야 함을 강조했다.

도시의 고대 아테네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한번 생성된 도시라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학적인 원인으로 도시는 몰락하기도 하고 번



성하기도 한다. 글레이저 교수는 산업화와 정치 체제 실패가 몰고 온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는 과거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다. 19세기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뉴욕, 시카고 같은 도시들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19세기 말 디트로이트는 1960-1970년대의 실리콘밸리와 흡사했다.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는 소규모 혁신자들의 온상으로 번창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역동적인 기업들은 모든 것이 통합된 거대한 자동차 회사들로 성장하면서 아

이러나하게도 디트로이트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기로 빠져들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사라지지 않았다. 글레이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쇠퇴할 때는 사람들이 집처럼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매우 느리게 쇠퇴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의 사람들이 빠져나간 건물들은 철거돼 공원이나 개방 공간 등으로 쓰여 버려진 건물이 위험하거나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주는 마천루이다. 계획적인 '마천루 경쟁'으로 부정적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글레이저 교수는 마천루를 '도시 개발의 아이콘'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나친 보존으로 도시의 역사가 도시를 구속한다면 도시는 가장 위대한 자선인 개발 능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단, 글레이저 교수는 올바른 도시 건축을 위한 세 가지 규칙을 설명했다. 현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확실한 허가 과정을 단순한 요금제로 대체해야 하는 것,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의 보존은 제한되고 잘 정의돼야 할 것, 개별 지역들은 그들만의 가진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 명확하게 설명된 힘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 그것이다.

글레이저 교수는 "인간은 파괴적 성향을 띤다. 숲과 기쁨을 태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에 해를 입힌다.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주장을 펼친다. 또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운전을 덜 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도시에 적응한 인간들이 자연을 '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세계의 거대 도시들은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것 같은 정도로 모든 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게다가 도시 빈민 문제, 범죄 문제 등 도시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하지만 도시가 인간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가 더 오래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인간'이 그 풍요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술부

■ 여인천하

19세기 여성여행가 김금원, 홀로 금강산에 가다

“현대의 대학생은 취업난, 등록금 등 각종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꿈이 무엇이든 잊고 있는 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조선의 풍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려 노력한 여성들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이거나 개척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려 한다.”

편지작주

1817년경 태어나 1851년 이후의 기록이 묘연해진 미지의 여인 김금원. 그녀가 지금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이유는 19세기 여성의 삶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던 조선시대, 14세의 어린 나이에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을 여행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시대의 한계상 그녀는 여자가 아닌 남장을 하고 떠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여행기를 담아 『호동서략기 湖東西路記』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그녀가 특별한 이유 또 한 가지는 한강변 삼호정을 중심으로 '삼호정시회'라는 여성들만의 구성된 시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외출의 자유가 별로 없었던 조선사회에서 홀로 여행을 떠났고, 자신의 호를 금원(金園)이라 칭하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 동호회를 운영하며 당당히 글을 남긴 김금원.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조용히 내 인생을 생각해보니 금수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이요, 아반인이 사는 곳이 아닌 조선과 같은 문명국에 태어난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이 아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행이다.”

『호동서략기』 중에서
서너로 태어난 그녀에게 자유의지대로 살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조선 후기 반쪽 양반인 서업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 나면서 그들의 억압된 욕구는 탈출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순응하며 살지

만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행과 불행을 직시하며 선택가능한 길을 찾았고 이를 실행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행인 것은 그녀의 부모는 관대했고 어릴 때 몸이 약했던 그녀에게 비느질이나 집안일을 가르치지 보다는 글을 가르쳤으며 그녀의 고집스런 여행 요구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그녀는 어릴 때 경서를 읽고 시문을 지을 수 있었으며 14세의 어린나이에 금강산 기행이라는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규방 깊숙이 들어앉아 여자의 길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단념하고 분수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녀의 자의식에 대한 의문은 21세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용한 질문이다. “자신에게 가로놓여진 환경적 악조건들을 그저 한탄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 그녀는 규방탈출의 길을 기행에서 찾았고 여행은 이후 그녀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세상의 넓고 깊음을 보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은 좁고 포부는 작아지기 마련이다. 미천한 계급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사대부 남성들보다 더 큰 꿈과 포부를 가질 수 있었던 그녀는 분명 21세기 우리에게도 훌륭한 멘토가 될 것이다.

최선경 / '행을 낚은 후궁들', 저자

■ 서평-파워블로거의 지식충전, 감성충전

이제 가난을 꿈꾼다

『자발적 가난』/E.F 슈마허/그물코



박연주 필명 '찰초다'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gotzoc3>)

한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돈이 전부 아니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그래서 '지니의 요술램프'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나는 돈이 아주 많았으면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사려고 사는 것은 상당히 고가인 것은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낮다. 물가는 늘 오

르지만 하고 월급은 제자리고 특출한 재주도 없다. 그런 내가 부자가 되길 꿈꾸며 아등바등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건 어쩌면 시간 낭비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날 EF 슈마허의 『자발적 가난』을 만났다. 소박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책의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원대한 가르침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행에 따라서 물집에 따라서 사는 것은 상당히 고스롭다. 천마다 웃을 사 입고 유행하는 가방을 사

십지도 립스틱 색을 바꿔가면서 사는 것은 진절머리 나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나에게겐 벼락이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겠다는 것은 '나에게 좀 더 행복하게 살자'의 다른 말이다.

세상은 말한다. 20대도 재테크에 미쳐야 한다고 미칠게 얼마나 많은데 재테크에까지 미쳐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나는 우아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법에 미쳐보려고 한다. 적어도 부자가 되지 못한 스트레스는 내 뒷이 안 되길 바란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바이블이다. 매일 한 페이지씩 머리맡에 두고 읽어 내려갈 바이블.



윤종현 필명 '꽃다지' 네이버 책 분야 파워블로거 (<http://blog.naver.com/myplanup>)

경제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줄어들어가는 회복률 조짐이 없다. 88만원 세대도 규정한 지금의 20대는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영어회화 수업서를 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씨름하지만, 확실한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20대는

세상의 주인공인 될 나만의 컨셉력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한기호/다산초당

무엇을 목표로 사회진출을 고민해야 하는가? 다가올 미래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를 통해 20대가 자기생존을 위해 컨셉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가 말하는 컨셉력은 간단히 말해 편집을 잘하는 힘이다. 그는 편집을 소재의 수집, 소재의 조합, 새로운 가치 창조, 세 단계로 구분한다. 지식의 많고 적음보다 정보의 검색이 중요해진 세상에서 똑같은 스펙과 점수로 경쟁하지 말고, 날린 지식과 정보를 내 것으로 가공해 나만의 아이디어와 경쟁력, 즉 나만의 가치를 만들라는 이야기다. 컨셉력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무기가 될 뿐만 아

니라 쓸데없이 낭비되는 인생을 재미있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꿀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닌 20대가 처한 현실을 놓고 비상할 삶의 지침서와 같다.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다보면 꿈이 없는 20대가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꿈을 즐겨온 마음으로 대답하는 이는 드물다. 그동안 남들 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맹목적으로 달리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나만의 길을 찾아나서는 것은 어떻게? 나만의 컨셉력으로 나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 때 좀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만족시대 중고도서 커넥터

안녕하십니까?

시험을 마치고 방학에 들어서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아르바이트도 시작하시고 다음 학기 등록금에, 식비에, 교통비까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학기에 샀던 3만원이 넘는 우리의 전공 서적들!!!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제 15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만족'이 학우분들의 금전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마련한 "사과대 중고도서 커넥터" 사업이 방중&2학기 까지 실시됩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싸이월드 클럽)
<http://club.cyworld.com/clubV1/Home.cy/54835093>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사회과학대 학생회실(진리관 1층)
 사과대 운영국장 신솔이 (메일 : ssolyi22@naver.com /
 혹은 개인 전화번호 0505 - 990-0203)로 문의주세요^^

2011 대학오페라 페스티벌 <추계예대> '사랑의 묘약'

순정남, 마초남, 쿿대높은 여자, 세 남녀의 풋풋한 사랑이야기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남긴 '사랑의 묘약'은 코미디와 로맨틱한 멜로가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 믿고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고자 모든 것을 바치는 네모리노의 애절한 사랑을 담았다.

대학오페라 페스티벌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한 3년간의 프로젝트로 예술의전당 서울·경기 지역 음악대학과 '산에' 협력해 오페라 공연을 올린다. 더불어 낮아진 입장료는 폭넓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공연 30분 전 도착한 공연장은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셋팅하는 손놀림과 사람들의 즐거운 설렘이 어우러지고 있었다. 객석의 불이 꺼지자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손짓에, 슬림이던 객석은 무대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그녀의 모습을 보면 불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되네. 그렇지만 그녀에게 내 마음 전할 길 없네' 한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소심한 남 자랑, 맑고 고운 목소리의 네모리노의 독주가 울려 퍼진다. 주위 친구들은 '발타는 사랑은 나무그늘과 사넬물로 식히지 못해, 사랑격정따윈 하지 않아요' 청중의 사랑노래를 부른다. 무대 한 쪽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주인공 아디나에게 한눈에 반한 벨코레는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나도 이 꽃을 아디나 당신에게 바치겠소. 나같이 멋진 혼남을 보고 반하지 않은 여자는 없었네' 하고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디나는 '생각 좀 해보고 할게요, 급한 건 없잖아요'라며 달란다. 그녀는 '저 사람 거만한 태도를 좀 봐, 난 쉬운 여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거야'라며 도도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괴로운 네모리노 자괴감에 사랑의 묘약을 찾아 다니기 시작한다.

'변치않는 사랑이란 없어요, 너무나도 어

리석은 거예요, 매일매일 애인을 바꾸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요, 인생을 즐겨요, 얼마일 것이 없이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가벼운 사랑을 추구하는 아디나는 소심한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때, 돌팔이 약장수 돌카마라는 우스꽝스러운 은갑치양복을 입고 등장해 사람들에게 약병을 터억하고 안겨준다. '무엇이든 고치는 척박사, 만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자들은 바르지만 해도 피부에 화이팅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오크너도 김태희로 바꾸어주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데 아니죠' 라고 박박 우기는 그는 우스꽝스러운 춤과 '저질댄스' 등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특히 네모리노에게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속여 비싼값에 팔 때는 자신의 무리들 앞에서 막춤을 추기도 하고 한국어로 '야 일 마!'라고 소리 치거나 '음악 주세요!' 라고 말하는 위트를 보였다.

사랑의 묘약을 마시고 흥겨워진 네모리노는 '라라라라-내일만 되면 고백해야지' 하고 자꾸 웃기 시작한다. 쳐다보지도 않던 아디나는 그의 이상한 반응에 '뭐가 저렇게 흥겨운거지? 내가 결혼한다는게 저렇게도 좋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결국 벨코레에게 오늘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자는 말을 내뱉는다. 약의 효과가 하루가 지나야 있다는 말을 믿고 있는 네모리노는 용기를 얻기 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아디나는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남자와 결혼하려 한다. 마음이 급해진 네모리노는 돌카마에게 다시 약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구하러 군대에 지원하라는 대에 지원하는데, 아디나는 밤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한다.

'여자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네, 밤까지 기다리라니' (벨코레) '야! 네모리노가 없잖아!!! 골려주려고 했더니!' (아디나) '하루만이라도 아디나를 얻을 수 만 있다면!' (네모리노)

엇갈린 세 남녀의 감정은 사랑의 묘약을 둘러싼 채 더욱 심화된다.

네모리노 숙부의 죽음으로 막대한 유산의 상속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마을처녀들은 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랑의 묘약 때문이라고 믿는 네모리노의 흐뭇한 표정을 지켜보는 아디나는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아디나를 지켜보던 돌카마라는 그녀에게도 사랑의 묘약을 팔려고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다. '내게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매력 넘치는 눈길, 내 미소에는 사내들도 행복하고 말아요, 네모리노도 날 피하지 못하죠, 내 미소가 바로 그 묘약이죠' 네모리노가 군대에 지원하면서까지 자신의 마음을 열고자 한 사실을 안 아디나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의 노래를 열창한다. 이 사실을 모르는 네모리노는 사랑을 얻지 못할 바에는 군인이 되어 싸우다 죽고 말거라는 말을 해 버리고, 바깥한 아디나는 '뭣 가요! 말하게요, 당신은 내 사람이예요!'라며 고백해 버린다.

결국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람둥이 벨코레는 '흥! 여자가 당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관객석에도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고!'라며 코웃음을 치고, 돌카마라의 즐거운 노래로 공연은 막을 내린다.

대학생들의 공연인 만큼 곳곳에 막춤, 국민체조 등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배치되어 훨씬 가볍게 즐길 수 있었던 '사랑의 묘약', 어려운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부르지만 센스있는 자막처리가 사람들의 웃음코드를 자극시켰다. 젊은 음악가들의 신선하고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가뭇났던 이번 공연에서 어려운 오페라의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다소 빠른 마무리 전개와 어수선했던 동선사용, 정리되지 않은 안무, 돌카마라의 괴로 인해 문턱버린 주인공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젊은 청춘들이 노래하는 사랑이야기, 순정,마초가 딱 어울리는 유쾌한 주인공들의 즐거운 공연을 보다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훌훌 날아갈 것이다.

대학생 오페라 페스티벌은 계속되며, 미리 예매하면 페스티벌가 격인 1-2만원대에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단극대 '박쥐' 8월 30일-9월 1일/일정회대 '호프만의 이야기' 9월 7일-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남긴 '사랑의 묘약'은 코미디와 로맨틱한 멜로가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 믿고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고자 모든 것을 바치는 네모리노의 애절한 사랑을 담았다.

대학오페라 페스티벌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과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한 3년간의 프로젝트로 예술의전당 서울·경기 지역 음악대학과 '산에' 협력해 오페라 공연을 올린다. 더불어 낮아진 입장료는 폭넓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공연 30분 전 도착한 공연장은 학생들이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셋팅하는 손놀림과 사람들의 즐거운 설렘이 어우러지고 있었다. 객석의 불이 꺼지자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손짓에, 슬림이던 객석은 무대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그녀의 모습을 보면 불수록 점점 더 빠져들게 되네. 그렇지만 그녀에게 내 마음 전할 길 없네' 한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소심한 남 자랑, 맑고 고운 목소리의 네모리노의 독주가 울려 퍼진다. 주위 친구들은 '발타는 사랑은 나무그늘과 사넬물로 식히지 못해, 사랑격정따윈 하지 않아요' 청중의 사랑노래를 부른다. 무대 한 쪽에서 책을 읽고 있는 여주인공 아디나에게 한눈에 반한 벨코레는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나도 이 꽃을 아디나 당신에게 바치겠소. 나같이 멋진 혼남을 보고 반하지 않은 여자는 없었네' 하고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디나는 '생각 좀 해보고 할게요, 급한 건 없잖아요'라며 달란다. 그녀는 '저 사람 거만한 태도를 좀 봐, 난 쉬운 여자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거야'라며 도도한 태도로 일관한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괴로운 네모리노 자괴감에 사랑의 묘약을 찾아 다니기 시작한다.

'변치않는 사랑이란 없어요, 너무나도 어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부드러움과 무거움, 두 얼굴을 가진 앨범 <Hotel California(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Eagles)는 1970년대 초에 결성된 미국의 록 밴드다. 록에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조합한 '컨트리 록'이라는 장르를 통해 미국 내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글스의 앨범들은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그들의 성공의 핵심에는 단연 <Hotel California(호텔 캘리포니아)>가 있다. 특히 이 앨범에 수록된 동명의 타이틀곡 'Hotel California(호텔 캘리포니아)'는 강렬한 기타사운드에 잔잔한 발라드를 가미한 부드러운 멜로디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평단에서도 극찬을 보냈다.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듯한 폰 펠더(Don Felder)와 조 웰시(Joe Walsh)의 기타는 서정적 미학의 극치를 보여주었는데, 한동안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이 곡을 카피하기 위해 애를 쓴 것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 곡 외에도 이 앨범에 수록된 New Kid in town(뉴 키드 인 타운), Wasted Time(낭비된 시간) 등 대다수의 곡들은 느리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아름답고 잔잔한 멜로디와는 상관없이 이 앨범의 주제는 오히려 사회문제나 부정적 현실 같은 무겁고 암울한 것들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앨범의 주제는 가사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전달되었는데, 'Hotel California'에서는 가사를 서사시처럼 전개해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와 그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고, 'Wasted Time'에서는 이미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삶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외에 Life In The Fast Lane 등의 곡에서도 이런 작품

은 무겁고 암울한 것들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앨범의 주제는 가사를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전달되었는데, 'Hotel California'에서는 가사를 서사시처럼 전개해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와 그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고, 'Wasted Time'에서는 이미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삶에 대한 냉소적 시선을 보여준다. 이외에 Life In The Fast Lane 등의 곡에서도 이런 작품

"You can checkout any 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당신은 언제든 나갈 수 있지, 하지만 여길 떠날 수는 없어!"

이 내용을 보면 곡에 나오는 '호텔 캘리포니아'에 묵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언제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떠날 수가 없다. 위기 상황이 있어도 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70년대 미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우며 자유를 주장했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른 견해로 이런 주제들이 나온 배경이 당시에 부드럽게 바뀌어버린 미국의 록과 그 대세에 떠났던 자신들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견도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록은 본래 록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을 거의 보존하지 못하는 대신 팝적인 요소를 가미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1977년에 발매된 빌리 조엘(Billy Joel)의 <The Stranger(이방인)>같은 작품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도는 신선하다고 평가되기도 했지만, 록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또한 이런 시도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선함마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글스는 이런 시도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도 록음악이 건재함을 증명하고 싶었던지도 모른다.

이유가 뭐가 되었든, 이 앨범의 곡들은 멜로디의 부드러움과 가사의 무거움이라는 이중적인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다중적인 모습은 바로 <Hotel California>의 매력이다. 황량함과 낭만이 공존하는 이 앨범에 찬사를 보냈고, 앨범은 미국에서만 1600만 장이 팔려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글스가 알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음식傳

일제와 식량정책에 찬란한 주류문화를 잃다 - 소주(燒酒)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소주를 마셔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약간 달면서 씹쓸한 그 맛과 싼 가격 덕분에 소주는 한국의 국민주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대량 생산되고 있는 소주는 한국의 전통 소주와는 다른 희석식 소주이다. 희석식 소주는 진한 주정에 물을 타서 만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편리하지만, 불순물 때문에 취하면 숙취가 많고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 전통 소주는 어떻게 발생했고, 왜 자취를 감춘 것일까? 한국에 소주가 처음 들어온 것은 서기 13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아랍지역에서 발전한 증류기술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당시의 소주는 탁주나 청주를 소주조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식 소주였다. 소줏고리로 증류한다는 특유의 방식 때문에 이슬처럼 받아 내린다는 뜻의 '노주', 불을 때서 받는 술이라는 뜻의 '화주', 땀방울처럼 받아 내린다는 뜻의 '한

주'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공이 만든 소줏고리가 필요했고, 냉각수와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어야 했다. 이런 복잡한 제조방식 때문에 소주는 고급술로 분류되었고, 향유하는 계층도 귀족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신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소주를 하사했다는 구절이나 왕자의 몸살약으로 소주를 썼다는 구절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주는 즐기는 술이 아니라 '약주'의 개념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소주는 매우 귀한 술이자 약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소주가 빛을 잃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전쟁에 이용할 곡물을 비축한다는 명목으로 곡물을 이용한 술 빚기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술을 빚는데 곡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청주와 탁주가 대부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소주를 만들

기 위해 필요한 청주와 탁주가 없어지자 증류식 소주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 더욱 결정적인 계기는 1965년에 선포된 정부의 식량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곡물을 아끼기 위해 술을 빚는데 곡물 사용을 또다시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곡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값싼 희석식 소주가 등장했고, 이것이 지금 마시는 소주가 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맥주를 증류한 위스키, 포도주를 증류한 브랜디 등등 외국의 증류주들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견주었을 때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증류식 소주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면, 우리 술도 고급술로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근래에 이르러 막걸리, 청주 등 대표적인 발효주들이 맛을 개량하거나 향과 색을 새로 첨가해 변화를 주어 외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술 복원에 대한 노력은 아직도 미미하기만 하다. 지금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



도 중요하겠지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20살이 되서 처음으로 친구와 단둘이 떠는 여행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땀 흘리며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보람이 있는 순천만의 풍경! 하지만(의생활 1) 하지원(의생활 1)

당신의
열정은 안녕
하시겠습니까

목마른 자여
진실의 우물을 파
갈증을 해소하라

눈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각서지 않으면 볼 수 없는게 많습니다
현실에 다가가 진실을 보고싶은
혹은 그러한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한성대신문사에서 격하게 환영합니다

모집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1,2학년 / 모집기간 : ~ 9월 16일(금) / 전형방법 : 지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 문의처 : 760-4186 / 010-4534-8682